

고창갯벌 세계유산센터 내년 착공

예산 170억 확보 행정절차 돌입 보전·활용 등 관리거점 조성 2026년 완공...경제 활성화 기대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전북 '고창갯벌'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는 '세계유산지역센터' 건립이 최종 확정됐다.

고창군은 '고창갯벌 세계유산 지역센터' 건립을 위한 국가예산 170억원이 확보됨에 따라 세계자연유산인 고창갯벌을 중점적으로 보전·활용할 수 있는 관리거점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고창갯벌은 지난 2021년, 충남 서천 및 전남 신안, 보성·순천 갯벌과 더불어 연속유산인 '한국의 갯벌'로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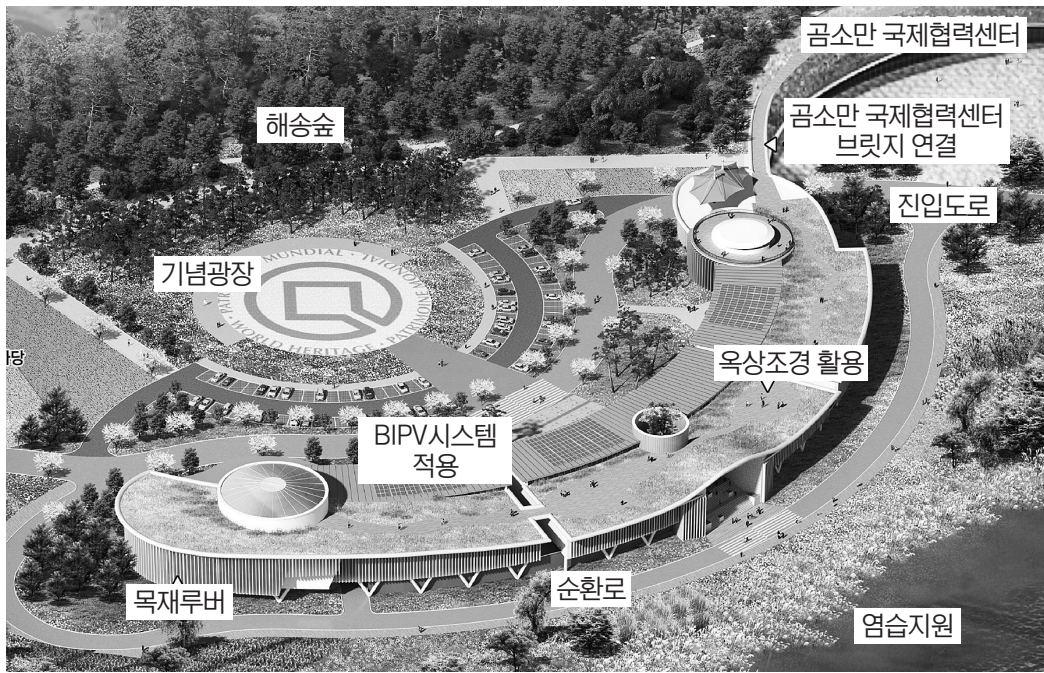
이후 신안에는 세계유산보존본부 유치가 확정됐고, 충남 서천 역시 지역센터 건립이 추진됐다.

하지만 고창갯벌을 보유한 전북권역에는 관리 시설이 없어 '한국의 갯벌'의 체계적인 통합 관리에 불균형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번 고창군의 사업유치를 통해 연속유산 관리 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고, 고창갯벌의 위상을 홍보할 수 있게 됐다.

군은 올해 사전 행정절차와 실시설계를 거쳐 2025년 착공에 들어가 2026년까지 고창갯벌세계유산지역센터를 완공할 예정이다.

고창갯벌의 보전 및 연구 등 유산관리의 기능과



고창갯벌 세계유산지역센터 조감도.

더불어 갯벌이 지닌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효과적으로 전시, 체험, 교육하는 등 유산관광의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공간 구성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갯벌 인근 지역주민의 참여와 교육을 통해 생태관광 인력을 양성하고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며 상생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세계자연유산인 고창갯벌의 뛰어난 가치를 체계적으로 보존하여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세계유산지역센터 건립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아울러 보전·관리 뿐만 아니라 갯벌과 지역문화가 결합된 생태관광 거점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구상해 고창군 관광산업의 지평을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고창 예비·신혼부부 무료 건강검진 확대

출산 장려시책...난임부부 시술비·미숙아 의료비 지원도

고창군이 첫 임신을 계획 중인 예비부부와 신혼부부에게 무료 건강검진 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

임신 전 필수 기본검사를 지원해 건강한 임신환경 조성하고 현실에 맞는 출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마련된 시책이다.

특히 올해는 결혼 3개월 이내 예비부부와 결혼 3년 이내 신혼부부 대상 확대하고 요건을 갖춘 사실혼 부부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까진 보건소 산전 건강검진은 주민등록상 고창에 주소지를 둔 예비임마에게만 지원돼 왔다.

군보건소(모자보건실)에 방문하면 혈액형, 일반혈액학(빈혈 외 9종), 간기능, 신장기능, 고지혈증, 당뇨, B·C형 간염 항체검사, 매독, 에이즈, 요 일반검사 등 총 28종의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또 올해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미숙아 의료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고위험 임신부 등에 대해서도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확대 지원된다.

앞서 군은 자체 예산을 확보해 지난해부터 산후조리비를 50만원에서 도내 최고인 200만원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지역 분만산부인과(고창병원) 이용 분만시 분만진료비 전액 지원, 임신출산축하용품(50만원), 산후 건강관리비(20만원), 산모·신생아 산후도우미(정부지원, 본인부담금 90%) 등을 지원하고 있다.

출산장려금 역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지난해 10월13일 이후 출생아부터는 첫째 3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 750만원, 넷째 1000만원, 다섯째 2000만원으로 지원규모를 확대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정읍 역사·문화 담긴 유물 찾습니다"

시립박물관, 다음달 19~21일 신청...역사시대~근현대사 모든 유형

정읍시가 지역의 역사를 담고 있는 역사 유물을 공개 구입한다.

시립박물관은 지역 공립박물관으로서 정체성 확립과 전시·연구 자료 활용, 지역 문화재의 보존을 위해 매년 정읍과 관련된 유물을 집중적으로 수집하고 있다.

올해 구입대상은 역사시대부터 근현대시대까지 정읍의 역사를 오롯이 담고 있는 모든 유형의 유물과 기록물이다.

매입 대상 유물은 소장 경위가 분명해야 하며 도굴·도난품 등의 불법유물이나 출처와 소유경위가 불분명한 자료는 매도신청을 할 수 없다.

매매를 원하는 개인 소장자, 단체, 문화재 매매업자(문화재청 허가) 등은 시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과 시립박물관 홈페이지에 기재된 서식을 작성해, 2월19일부터 21일까지 시립박물관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유물은 서류심사와 유물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구입 여부가 결정된다.

정읍시 관계자는 "정읍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시립박물관을 잘 보존해 우리 지역의 소중한 유물을 미래 세대에 전달할 수 있도록 유물 구입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정읍 특산자원 활용 헬시푸드 상품 공모

청년·청년단체 대상...3팀 선발해 각각 5000만원 지원

정읍시가 지역 특산자원을 활용한 상품개발과 제품화를 위해 22일까지 '청년 아이디어 상품화 모델 육성 사업'을 공모한다.

'청년 아이디어 상품화 모델 육성 사업'은 정읍 특산자원인 귀리, 밀, 콩, 쌀 등에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해 경쟁력 있는 상품을 발굴하는 것으로, 일자리 창출은 물론 농업·농촌 활력을 불어 넣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사업대상은 18세 이상부터 45세 이하 청년이나 청년이 주체가 되는 단체다. 시는 1차 서류 및 현지심사(30%), 2차 발표심사(70%)를 거쳐 총 3팀을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팀에게는 각각 5000만원을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가 추구하는 상품화 방향은 특산자원을 원료로 사용한 헬시푸드(healthy-food) 융복합 상품이다.

특히 그래놀라, 오트밀, 분말, 볶음곡식, 페이스 트 등을 활용한 간편하고 균형 잡힌 한 끼 식사, 디저트, 밀키트 등을 개발해 건강에 관심 있는 소비층을 겨냥할 예정이다.

이용관 정읍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업 취지에 맞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시장성 있는 아이템이 발굴되길 바라며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GAP 위생시설 보완 남원시, 공모사업 선정

포도 선별장 시설 보수 진행

남원시가 농림축산식품부의 '2024년 GAP 위생시설 보완 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사업비 4600만원을 확보했다.

농산물우수관리(GAP) 위생시설 보완 지원사업은 수확된 농산물의 위생과 안전 관리를 위해 농산물 우수 관리시설의 위생설비를 보완·강화하는 사업이다.

공모는 도내에서 총 5개소가 신청했고 서면심사와 분야별 전문위원의 현장평가 등의 경쟁 끝에 남원시의 지리산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 사업대상으로 선정됐다.

정대환 지리산농협 조합장은 "올해 GAP 위생시설 보완 지원사업으로 포도 선별장에 냉난방기 개보수와 전등 보수를 진행해 수확된 농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남원시 관계자는 "GAP 위생시설 보완 지원사업을 통해 포도 선별장의 냉난방기 및 전등 보수로 대한민국 대표 명품 남원 고품질 포도를 더욱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상품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남원 유해야생동물 포획단 활동 개시

연말까지 피해방지단 운영...지난해 고라니 1789마리 등 포획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 지난 10일 남원시 안전교육을 하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남원시 제공>

남원시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을 위해 '피해방지단'을 본격 운영한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기간은 15일부터 12월 말까지다.

피해방지단은 공개모집을 거쳐 3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피해 신고가 접수된 지역 위주로 집중 투입돼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나선다.

포획대상은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이다. 지난해의 경우 피해방지단 운영으로 멧돼지 737마리,

고라니 1789마리 등을 포획했다. 농작물 피해 예방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는 본격적인 포획 활동에 앞서 총기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남원시 관계자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12월 말까지 운영된다"며 "특히 올해부터는 야생동물 포획과 실적의 효율적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야생생물관리시스템' 앱도 상시 활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개발부지 매매

경상남도 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

매매금액

720억

대지면적

66,773㎡ (20,198평)

연면적

33,730㎡ (10,203평)

용도지역

일반공업지역

- 한전 수전 사전검토 100MW 검토 완료로 데이터센터부지로 활용 가능
-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전기, 수도 등 첨단산업 중심 유치로 연계사업, 연구 등 시너지효과 발휘 가능
- 전국 항만 누적 물동량 41%에 달하는 부산항, 마산항, 감천항 인근에 위치한 자산
- 현 매각 토지 약 2만여평으로 1만평으로 분할 매입 협의 가능

대표
번호

02-554-9685
010-4484-8110

(주)알스퀘어에셋부동산중개 | 대표 염 정 오
11680-2019-00486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11 3층 (역삼동, 아남타워)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

도움이 필요한 느린학습 아동이 '나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현직교사가 맞춤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1 지원대상

지역아동센터 이용 초등학생 중 인지·학습·정서·사회성 영역에서 도움이 필요한 아동

2 전문인력(현직교사) 양성 및 파견

느린학습자 특화교육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
지역아동센터 1개소 당 1명의 현직교사가 파견

3 아동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 인지·학습 강화 프로그램(주 2회)
- ☑ 정서·사회적응력 향상 프로그램(주 1회)

사업수행체계

지원 : 복권위원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복권기금)

관리·사업수행 : 남부대학교,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사업참여 : 지역아동센터 40개소, 참여아동 160명

아동지원체계

현장교사양성 > 지역아동센터파견 > 아동 프로그램지원 > 사회 구성원의 기본 역량 향상

본 사업은 복권위원회가 광주광역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복권위원회 복권기금 지원으로 경제선지능아동(느린학습자)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이라는 사회적 가치 제고를 지향하고 있습니다.